

# 중금리 대출과 금융안정\*

남재현\*\*

## 초록

본 연구에서는 개별 금융기관들이 제공한 CB사 보유 미시 자료를 이용하여 중금리 대출의 경쟁 확대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는 개별 대출의 이자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중금리 대출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이 불가능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CB사가 보유한 이자납입액 정보를 이용한 추정금리를 사용하여 중금리 차주를 식별하였다. 이를 이용 중금리 시장의 확대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차주의 연체 유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짓(Logit) 모형을 추정하였다. 차주의 연체를 설명하는 개인의 상환 능력과 관련된 여러 변수들을 통제 한 후에 추가적으로 중금리 시장의 확대가 차주의 연체 확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핵심 주제어: 중금리 대출, 경쟁, 금융 안정

---

\* 본 논문은 한국은행의 재정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용역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분석에 많은 도움을 주신 디지털금융연구소 문영배소장과 NICE평가정보(주) CB연구소 신승도 선임연구원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 국민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교수, 전화: 02-910-4875, E-mail: jnahm@kookmin.ac.kr

## I. 서론

국내 서민금융의 문제점으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것 중의 하나가 대부업 중심의 지나친 고금리 대출이 만연한 가운데 중간금리 개인 신용대출 시장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행히 이에 대응한 정책 당국의 최근 일련의 조치 및 개별 금융기관의 새로운 시장 확보 노력으로 2015년 이후 은행권 및 비은행권의 중금리 신용대출 공급이 이전보다 증가되는 양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2015년 은행과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이 신규 출시되었으며, 2016년 서울보증보험사의 보증을 기본 구조로 하는 은행권의 사잇돌I과 저축은행권의 사잇돌II의 공급이 시작되었고 이어 상호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이러한 중금리 대출 시장의 확대는 핀테크 열풍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P2P대출 시장 및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포함한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중금리 신용대출 공급 증가를 고려할 때 그 경쟁 정도가 향후에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중금리 대출 상품의 공급 증가가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CB사 보유 미시 자료의 분석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중금리 대출 시장의 경쟁 심화가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을 예상해보고자 한다.

미시 자료를 이용한 중금리 대출시장 분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중금리 대출 실행 차주를 식별하는 것이다. 현재는 신용대출 금리에 대한 정보는 각 금융기관이 영업 비밀로 공유 자체를 꺼려하여 개별 대출건의 대출 금리와 이에 따른 중금리 대출 식별 관련 정보가 공유되고 있지 않은 상황<sup>1)</sup>이므로, 분석을 위해서는 CB사 보유 정보를 바탕으로 이를 추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CB사가 보유한 정보를 통해 중금리 대출 차주를 식별하고, 이러한 추정치에 근거한 금융기관 미시 자료를 이용하여 중금리 대출 경쟁 심화에 따른 금융 권역별 거래 고객군 집단 변화 및 중복과 이러한 변화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중금리 대출시장과 관련한 기존 연구는 서민금융 관련 정책 논문 등에서 중금리 대출 시장 부채를 문제점으로 언급되는 정도일 뿐 중금리 대출시장 자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박창균(2014)은 “금리를 기준으로 할 때 15%~30%에 해당하는 소위 중간금리 시장에서 신용공급자의 부족으로 인한 시장결핍 현상이 만연하고 있음...”이라고 중금리 시장의 부채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보다 최근의 연구로 송준혁(2016)은 신용등급별 대출 및 금리 현황을 통해 중금리 시장 현황을 개괄하고 ‘가계금융복지조사’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금리 하락에 따른 DSR 및 연체 확률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중금리 시장 자체에 대한 연구는 “... 신용정보법을 들어 자료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고 있어 개별 연구자들은 금리 자료에 대한 접근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sup>2)</sup>는 이유를 들어 분석에서 제외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CB사가 보유한 이자납입액 정보를 이용하여 개별 대출 금리를 추정하여 사용하였다. CB사에 제공되는 모든 차주의 대출정보가 반드시 이자납입액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고, 보편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자를 갚은 차주

1) 다만 신용정보원은 2016년 12월부터 DSR 관련 정보로 대출 금리 정보를 집중하여 관리하고 있음.

2) 136쪽 각주 7

의 경우에는 주어진 이자납입액 정보로 추정된 이자율이 실제 이자율과 상이할 수도 있는 등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이자율은 하나의 추정치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금융기관들이 직접적인 이자율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이러한 추정 금리가 이용 가능한 최선의 자료일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NICE CB 보유 100만 샘플로부터 추출한 10만건 이상의 표본수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극단치는 분석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추정 금리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연구 과제로 추후에는 보다 정확한 이자율 정보와 보다 넓은 포괄 범위 및 대상을 가지고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추정 이자율을 사용하는 관계로 예를 들어 이번 연구에서도 업권간 비교 등의 연구가 불가능하였다. 이자 납입 정보를 이용하여 대출 이자율 추정이 가능한 자료만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경우, 이자 납입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비중 등이 자료 제공 시기 및 제공 업권별로 상이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업권간의 비교 분석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중금리 신용대출에 대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엄밀한 정의는 없다.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2016.1)에서도 “중금리 신용대출은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10% 전후 금리대의 개인신용대출을 지칭”하되 “정확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4~7등급, 7~15% 금리 개인 신용대출로 이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다른 보도자료(2017.7)에서도 민간 중금리시장을 평균 금리가 18% 이하이고 4~10등급 차주에게 70% 이상 실행된 상품<sup>3)</sup>으로 추계하고 있다. 이렇게 구체적인 신용등급과 금리 수준을 지정하여 중금리 대출을 정의하는 것은 전반적인 금리 수준의 변화에 따른 중금리에 해당하는 금리대의 변화 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최근 3년 정도의 분석 기간 중 현저한 금리 변화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여 중금리 대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우선 현재 중금리 대출 정책금융 상품인 사잇돌 대출의 실제 시현 금리 분포는 은행의 경우 6%에서 10%사이의 이자율이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고, 상호금융은 7%에서 12%사이가 86%를, 그리고 저축은행은 12%에서 18%사이가 7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금리 대출의 이자율 수준을 6%에서 18%사이로 정하였다.

또한 기존의 중금리 대출 시장 부재 지적과 관련된 여러 논의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중금리 대출에 대한 적절한 개념적 정의에는 중신용자에 대한 과다하게 높지 않은 금리의 신용대출뿐 아니라 현재의 고신용자의 추가 대출에 대한 기존 금리보다 과다하게 높지 않은 금리의 신용대출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1등급에서 3등급 고신용자의 금리 6%에서 18%사이의 대출을 중금리대출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반면에 8에서 10등급 저신용자의 금리 6%에서 18%사이의 대출은 그 비중이 매우 미미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중금리 대출과는 성격이 상이한 대출로 판단된다. 2017년 8월 신규 대출을 기준으로 각 은행의 신용등급별 평균 금리수준을 보면 대부분의 은행에서 9~10등급의 고객에게 6%에서 18%사이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음을 <표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신용평가에 대출 부여시 제공된 이자율이라기보다는 기존 대출의 부실 및 상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율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저신용자들의 금리 6%에서 18% 사이의 대출은 중금리대출에 포함되지 않아야

---

3) 사잇돌 제외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중금리대출을 이자율 6~18% 수준의 무담보 개인신용대출 이면서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7등급사이인 대출로 정의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표 1> 은행의 신용등급별 금리

단위: %

은행명	1~2등급	3~4등급	5~6급	7~8등급	9~10등급
BNK경남은행	3.19	4.13	5.2	8.45	10.53
BNK부산은행	3.3	3.49	4.25	6.65	9.85
DGB대구은행	4.01	4.82	6.09	7.92	9.38
IBK기업은행	3.61	4.44	6.16	8.63	9.5
KB국민은행	3.69	5.01	6.43	9.64	10.19
KEB하나은행	3.27	4.42	7.69	9.78	-
NH농협은행	3.1	3.72	5.24	7.19	8.2
SH수협은행	3.91	4.79	7.16	10.5	-
광주은행	5.09	6.24	8.45	10.61	10.93
스탠다드차타드은행	3.25	3.85	5.39	8.96	10.25
신한은행	3.78	3.8	4.58	7.25	9.94
우리은행	3.1	4.36	6.33	8.38	13.63
전북은행	4.35	4.79	5.73	9.6	11.83
제주은행	3.39	3.68	5.09	10.32	12.23
케이뱅크은행	3.61	5.66	7.04	8.89	-
한국씨티은행	4.11	5.53	8.36	10.78	-
한국카카오은행	3.16	3.92	5.34	7.58	-

주: 2017년 8월 신규 대출

자료: 은행연합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장에서는 과거 중금리 대출 시장의 부재라는 문제점의 실태와 그 원인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최근 중금리 대출 시장의 변화를 제도적 여건의 변화와 중금리 대출 시장의 최근 현황을 통해서 고찰해 본다. III장에서는 미시 자료를 이용하여 중금리 대출 시장의 최근 증가 추세를 확인하여 본다. IV장에서는 미시 자료를 이용한 Logit 분석을 통해서 중금리 대출시장의 확대 및 경쟁의 심화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이러한 발견들을 중심으로 결론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 II. 중금리 대출시장 개황

### 1. 중금리 대출시장의 부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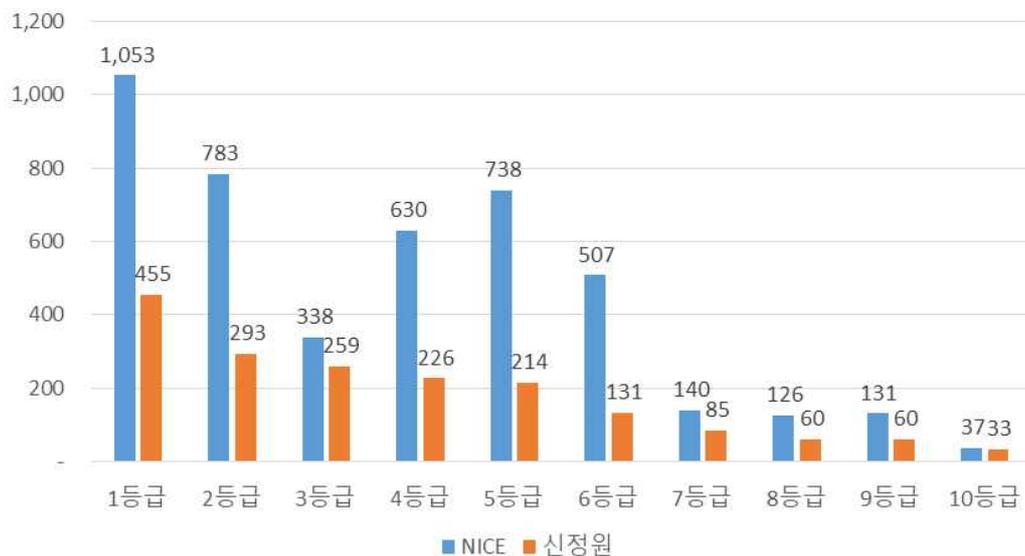
#### (1) 중금리 대출의 과소 공급

중금리 대출 시장이 부재하다는 비판은 우리 경제에서 중간 수준의 신용도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신용대출 수요자가 상당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이러한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적절한 이자율을 제시하는 신용대출 상품의 공급이 없거나 매우 부족하다는 과소 공급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간 금리 상품의 공급 부족은 결국 신용대출 시장에서 중간 신용도와 중간 리스크를 가진 상당수의 금융 수요자들이 궁극적으로 대출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낮은 신용도와 높은 리스크를 가진 금융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높은 이자율의 대출 상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그림 1>에 따르면 2017년 3월 말 기준 한국신용정보원 기준으로 전체 신용대출 이용자 1,816만명 중에서 신용등급 4등급에서 7등급의 중신용을 가진 신용대출 이용자는 656만명이나 존재한다. 심지어 NICE CB 기준으로는 전체 신용대출 이용자 4,483만명 중 중신용등급 신용대출 이용자는 무려 2,015만명으로 한국신용정보원 자료보다 더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중금리 대출 시장의 부재는 이러한 중신용등급 신용대출 이용자 중 상당수가 자신들이 지불해야 하는 이자율보다 더 높은 금리를 지불하고 대출을 받고 있거나 대출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그림 1> 신용등급별 신용대출 이용자 분포

단위: 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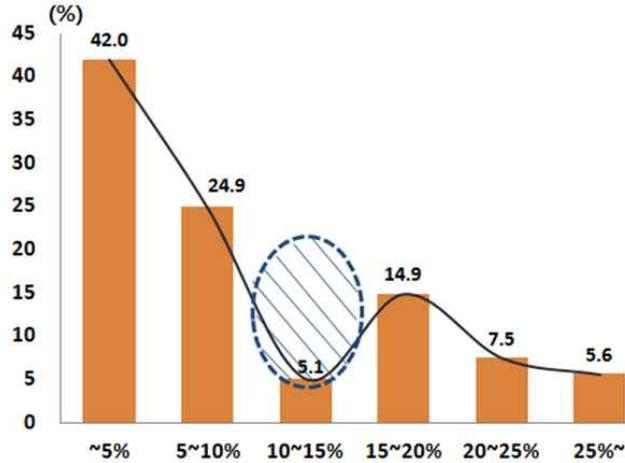


주: 2017년 3월 31일 기준

자료: NICE, 한국신용정보원

한국은행과 감독 당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그림 2>와 <그림 3>에서와 같이 여러 차례 지적하여 왔다. <그림 2>에서 보이듯 2015년 9월말 기준으로 이자율 10%에서 15% 사이의 구간에 해당하는 대출 잔액은 전체 개인 신용대출 잔액의 5.1%로 타 금리 구간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2> 금리 구간별 가계신용대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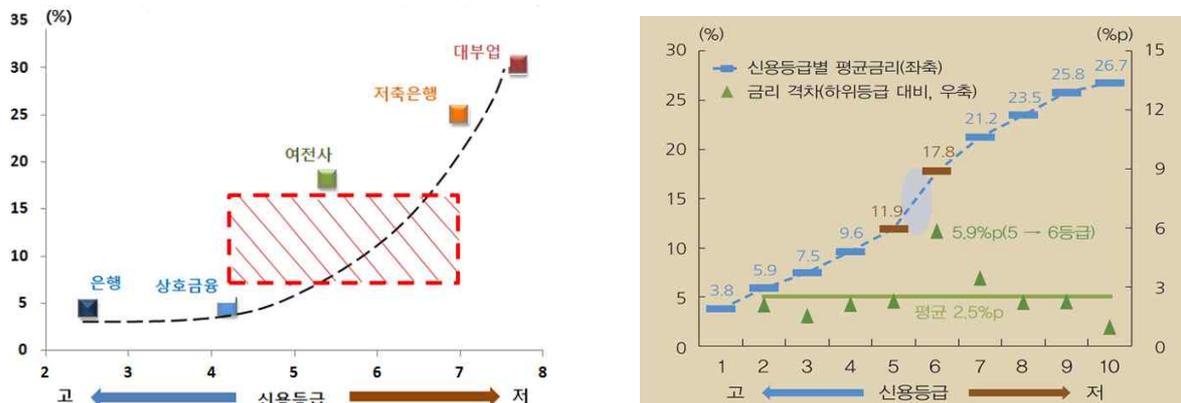


주: 2015년 9월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15.12)

또한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15년 9월말 기준 개인 신용대출의 업권별 평균 금리는 은행이 4.4%, 상호금융이 4.6%, 여신전문기관이 18.1%, 저축은행이 25%, 대부업이 30.2%를 차지하고 있어, 중간 신용도와 중간 리스크를 가진 금융 수요자들이 은행이나 상호금융권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 대출을 포기하거나 18%가 넘는 고금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2015년 9월말 기준으로 신용등급 간 대출 금리의 격차는 평균 2.5%포인트이나, 중신용대인 5등급과 6등급 사이의 대출 금리 격차는 5.9%포인트나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신용등급 및 신용대출 금리 분포



주: 2015년 9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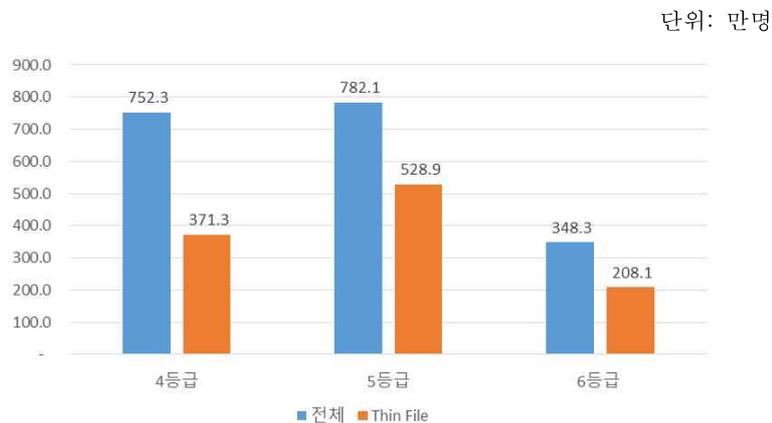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1),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15.12)

## (2) 과소 공급의 원인

중금리 대출 시장의 과소 공급이 발생하는 이유는 중신용자의 신용평가 인프라가 충분히 구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금리 시장은 전통적인 신용위험 관리 기법들이 작동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우선 <그림 4>에서 보듯이 2016년 12월 기준 NICE CB 신용등급 4등급의 49%, 5등급의 68%, 6등급의 60%가 금융이력이 부족한 대학생이나 주부 등의 Thin File<sup>4)</sup>에 해당하는 금융 이용자이다. 중신용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이러한 Thin File의 경우 제도권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 거래를 수행한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고, 자산 등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핵심지표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용평가모형의 경우 중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을 거절하는 소위 제1종오류(type I error)의 확률이 지나치게 크게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림 4> Thin File 중신용자 분포



주: 2016년 12월 기준

자료: NICE

서민금융 시장에 존재하는 평판위험 또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고금리에 대해 사회적 낙인(stigma)으로 말미암아 평판위험을 우려하는 잠재적 신용공급자가 충분한 이윤확보 기회를 확인하고도 시장진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2011년 말 금융당국의 권유로 모 은행이 대부업 진출을 검토하였으나 비판적인 여론 때문에 결국 이를 포기한 사례는 평판위험으로 인한 예상 비용 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sup>5)</sup>

마지막으로 신용 평가 관련 인프라의 부족을 주요한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중신용자의 신용도를 반영하는 정보의 수집과 공유가 충분하지 않아 신용평가 정보가 부족하고 평가 시스템이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아 금융회사가 중신용자의 신용도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sup>6)</sup>

4) 일반적으로 최근 2년 내 신용카드 사용 실적이 없고, 3년 내 대출 보유 경험이 없는 사람을 지칭하며, 이러한 Thin File의 경우 현재 일괄적으로 중신용 등급이 부여되고 있다.

5) 박창균(2014)

6) 남재현(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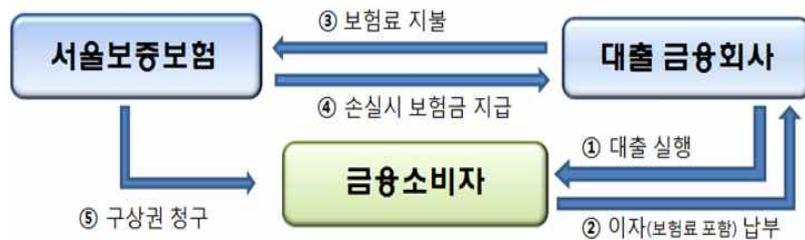
## 2. 최근 중금리 대출시장의 변화

### (1) 최근의 제도적 여건 변화

최근 정부는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금리 대출의 양적 증대 및 질적 제고를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을 중심으로 한 정책 중금리 상품의 공급과 인터넷 은행 및 P2P대출 제도의 도입 및 정비를 통해 중금리 대출의 양적 증대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와 대부업 정보 공유 확대 등을 통한 신용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각종 제도적 지원을 경주함으로써 중금리 신용대출의 연체율 하락을 위한 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의 질적 개선 노력도 함께 하고 있다.

특히 양적 증대의 경우, 금융당국은 은행(2016.7), 저축은행(2016.9), 상호금융(2017.6)을 통해 보증기관과 제휴함으로써 중금리 대출의 리스크 관리 위험을 보완한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인 사이트돌 대출 상품의 출시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 상품은 기존에 일부 은행에서 판매하던 상품 구조를 벤치마킹하여 <그림 5>와 같은 구조로 설계되었다. 금융회사는 사이트돌 중금리 대출을 실행할 때 보증보험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대신 보증보험사는 대출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대출자는 보증보험의 보험료를 포함한 대출 이자를 해당 금융회사에 납부하게 되는데, 대출 금리 및 보험료는 보증보험사와 금융회사가 협의하여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 때 보증기관은 보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보증기관 자신의 신용평가모형을 사용하게 하며,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품의 연체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는 경우 금융회사도 손실을 분담하도록 하였다.

<그림 5> 사이트돌 상품 구조 개요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1)

이와 함께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통해 중금리 신용 대출을 늘이는 노력도 병행하여 2017년 4월에 케이뱅크가 그리고 2017년 7월에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2016.1)에 따르면 향후 3년간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해 1.4조원 규모의 중금리 대출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케이뱅크의 경우 지난 8월 여신 취급 건수 6만 4,251건 중 55.6%에 달하는 3만 5,754건이 중금리 대출<sup>7)</sup>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최근 세계적인 핀테크 열풍으로 국내에서도 P2P대출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P2P를 통한 누적 대출액 규모가 2015년말 373억원에서 2016년말 6,289억원, 2017년 4월말 11,298억원으로 증가하였다. P2P 대출은 자금 수요자와 투자자를 단순하게 연결시켜 주는 방식

7) 8월 21일 신문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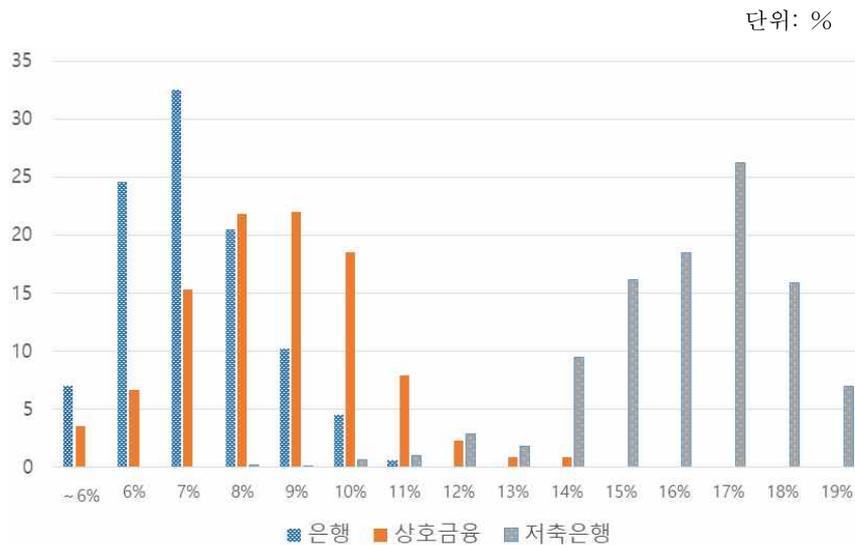
이기 때문에 판관비나 대손충당금 등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설립 초기에는 사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우량 등급을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나 점차 신용등급 5등급에서 7등급의 중간 신용자들을 대상으로 10%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P2P대출업체는 제도권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투자자 보호 및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제도 정비에 노력하고 있다.

## (2) 최근 중금리 대출시장 현황

정부의 정책 중금리 상품인 사잇돌 대출의 경우 제도를 도입한지 1년여만에 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당초 보증 공급 목표를 2배 이상 늘임으로써 중금리 시장 규모의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2017.7)에 따르면 2017년 7월 14일 현재 전체 사잇돌 대출은 총 7만 6,174건 7,828억원 규모에 달한다. 2016년 7월부터 시작한 은행권의 경우 9개 은행 및 4개 지방은행에서 총 4만 1,658건의 4,549억원을<sup>8)</sup> 지원하였다. 2016년 9월부터 시작한 저축은행권은 38개 저축은행에서 총 3만 3,790건의 3,064억원을<sup>9)</sup> 지원하였으며, 2017년 6월부터 시작한 상호금융권의 경우 신협, 농·수협, 새마을금고에서 816건의 91억원을<sup>10)</sup> 지원하였다. 시행 초기 1조원 공급을 목표로 하였으나 총 공급 목표 금액을 2.15조원으로 확대하여, 은행 9,000억원, 저축은행 1조 500억원<sup>11)</sup>, 상호금융 2,000억원으로 할당하였다.

<그림 6> 금리대별 사잇돌 대출 비중



주: 2017년 7월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7.7)

사잇돌 대출의 대출 금리는 <그림 6>에서 보듯이 은행의 경우 6%에서 10%사이의 이자율

8) 평균: 1,124만원

9) 평균: 1,115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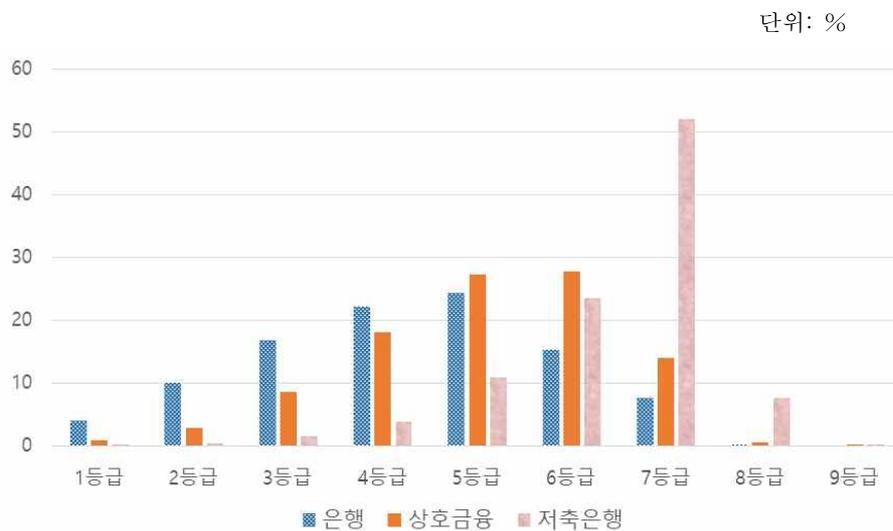
10) 평균: 907만원

11) 2017년 7월 18일부터 개시된 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 1,500억원 포함

이 전체의 88%를, 상호금융은 7%에서 12%사이가 86%를, 그리고 저축은행은 12%에서 18%사이가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금리 수준은 기존의 저축은행 신용대출의 평균 금리인 25.4%<sup>12)</sup>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사잇돌 대출을 차주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그림 7>과 같은 분포를 보인다.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5등급의 비중이 전체 사잇돌 대출의 24.3%로 가장 높으며, 4등급에서 7등급 사이의 중신용등급의 비중은 61.8%를 차지한다. 이에 반하여 상호금융의 경우 신용등급 6등급의 비중이 27.7%로 가장 높으며, 중신용등급의 비중은 87%이고, 저축은행의 경우 신용등급 7등급의 비중이 52.1%로 가장 높으며, 중신용등급의 비중은 90%에 달한다.

<그림 7> 신용등급별 사잇돌 대출 비중



주: 2017년 7월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7.7)

한편, 정부는 이러한 정책적 노력 등에 힘입어 민간 중금리 시장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2016.8)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중금리 신용대출 규모 역시 반년만에 2배 이상 증가하고 저축은행 등의 신규 중금리 상품 출시도 증가하는 등 민간 중금리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주요 중금리 상품 대출 잔액이 2015년말 668억원에서 2016년 4월에는 2,154억으로 급증하였으며, 신한카드·SK텔레콤 중금리 상품공급 제휴(6월), 한국투자저축 ‘살만한 대출’(7월), JT친애저축 ‘슈퍼와우론’(8월) 등의 민간 중금리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다른 보도자료(2017.7)에서도 2017년 1사분기 중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의 평균 금리가 18% 이하이고 4~10등급 차주에게 70% 이상 실행된 상품 중 사잇돌을 제외한 중금리 대출 취급액이 2016년 1사분기 1,656억원에서 2017년 1사분기 6,339억원으로 3.8배 수준으로 증대하였다고 한다.

2015년 대비 최근 출시된 민간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의 종류를 <표 2>와 <표 3>을 통해 비교해보면 이러한 민간 중금리시장의 활성화 주장이 일견 설득력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에 비해 최근에 중금리 신용대출의 상품 종류들이 증가하였고 또한 개별 상품의 대출 한도도 늘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적 증거만으로는 중금리 시장

12) 2016년 6월말 기준

의 확대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다음 장에서는 금융기관들이 CB사에 제공한 미시 자료를 이용하여 정책 중금리뿐만 아니라 민간 중금리 상품까지 포함한 중금리 대출시장 전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 2> 2015년 출시된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

단위: 백만원, %

기관		상품명	출시일	대출한도	적용금리
은행	농협은행	EQ론(easy&quick)	'15.12월	10	5.0~9.0
	신한은행	써니모바일대출	'15.12월	5	4.9~8.3
	기업은행	i-ONE스마트론	'15.8월	10	3.2~8.5
	우리은행	위비모바일대출	'15.5월	10	5.9~9.7
저축은행	JT친애	원더풀WOW론	'15.12월	50	12.0~19.9
	SBI저축	모바일신용(사이다)	'15.12월	30	6.9~13.5
	신한저축	신한스피드허그론	'15.9월	15	9.9~19.9
	웰컴저축	웰컴척척대출	'15.8월	5	14.9~19.9
	KB저축	착한전환대출	'15.5월	30	6.5~19.9

자료: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6.1)

<표 3> 최근 은행의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

단위: 백만원, %

은행명	금융상품명	대출 한도	신용등급별 금리					
			1~3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10
케이뱅크	슬림K 중금리대출	39	5.35	6.00	6.51	6.96	7.51	8.17
케이뱅크	미니K마이너스통장	5	5.50	5.50	5.50	5.50	5.50	5.50
부산은행	BNK직장인행복드림대출	150	6.34	7.49	8.77	9.57	10.09	
광주은행	쏠쏠한은행대출	50	6.19	7.14	8.35	9.73	12.10	
광주은행	스마트퀵론대환형	30	12.43	11.46	12.24	13.51	14.56	
전북은행	뉴이지론(원리균등)	20	8.54	9.94	9.62	11.26		
신한은행	Sunny 직장인대출	10	5.90	6.47	7.02	7.57	8.00	8.91
신한은행	Sunny 모바일 간편대출	5	6.35	6.70	7.10	7.65	8.17	10.14
농협은행	NH EQ론	10	6.57	7.45	8.00	8.64	9.07	

주: 2017년 2분기 기준

자료: 은행연합회

### Ⅲ. 미시 자료를 이용한 중금리 대출 분석

본 장에서는 개별 금융기관들이 제공한 CB사 보유 미시 자료를 이용하여 중금리 대출 시장의 증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NICE CB가 보유한 전국민 대상 자료 중 무작위 추출된 100만명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100만 샘플 자료는 여러 프로세스를 통해 전국민에 대한 대표성이 검증된 자료이다. 그러나 대출이자율의 경우 개별 대출건당 이자율에 대한 정보가 CB사에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차주가 상환한 이자 납입 정보를 이용해 유효한 대출이자율을 추정하여 사용하였다.<sup>13)</sup> 그러므로 이용 가능한 이자 납입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대출의 경우에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우선 본 장에서는 이러한 100만 샘플 자료에서 분석 기간 중 신규 대출을 실행한 차주만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신규 신용대출 실행 후 분석 기간 중에 대출을 해지하였다 라도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개별 대출자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IV장과 달리 이 장에서는 개별 대출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예를 들어 2016년 중 저금리와 중금리를 모두 실행한 경우 본 장의 분석에서는 각각 다른 경우로 차주수가 합산되어 계산된다.

본 장에서의 금리대 구분은 서론에서 논의한 것처럼 저금리 대출을 NICE 신용등급 1등급에서 7등급 사이의 차주의 금리 6%미만의 신용대출로, 중금리 대출은 신용등급 1등급에서 7등급 사이의 차주의 금리 6%에서 18% 사이의 신용대출로, 그리고 고금리 대출은 금리 18% 이상의 신용대출로 정의한다.<sup>14)</sup>

<표 4> 신용대출 금리별 비중 (2016년)

단위: 만명, 백건, 조원

구분	100만 샘플			샘플 내 비중			전 국민 환산 <sup>15)</sup>		
	차주수	대출건수	대출금액	차주수	대출건수	대출금액	차주수	대출건수	대출금액
저금리	2.83	2.82	1.18	47.1%	45.2%	77.1%	116.5	116.1	48.7
중금리	1.70	1.70	0.21	28.3%	27.3%	13.9%	70.0	69.9	8.8
고금리	1.39	1.62	0.13	23.1%	26.0%	8.3%	57.1	66.8	5.3
해당없음	0.09	0.09	0.01	1.5%	1.5%	0.7%	3.8	3.7	0.4
전체	6.01	6.24	1.54	100%	100%	100%	247.4	256.6	63.2

주: 2016년 중 이루어진 신규 신용대출 대상  
자료: NICE CB

이 때 본 장에서 이용하는 표본의 저금리, 중금리, 고금리 대출의 비중을 바탕으로 국가 전체의 대출 규모를 환산해 보면, <표 4>에서 나타나듯이 2016년의 경우 256.6만건 63.2조원의 신규 대출이 이루어졌으며, 이 중 중금리 대출은 69.9만건 8.8조원의 신규 대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 기간 중의 전체 신규 신용대출은 80조원 정도이므로 CB의 정보 집중 대상과 범

13) 추정 대출이자율 =  $12 \times \frac{\text{월 이자납입액}}{\text{대출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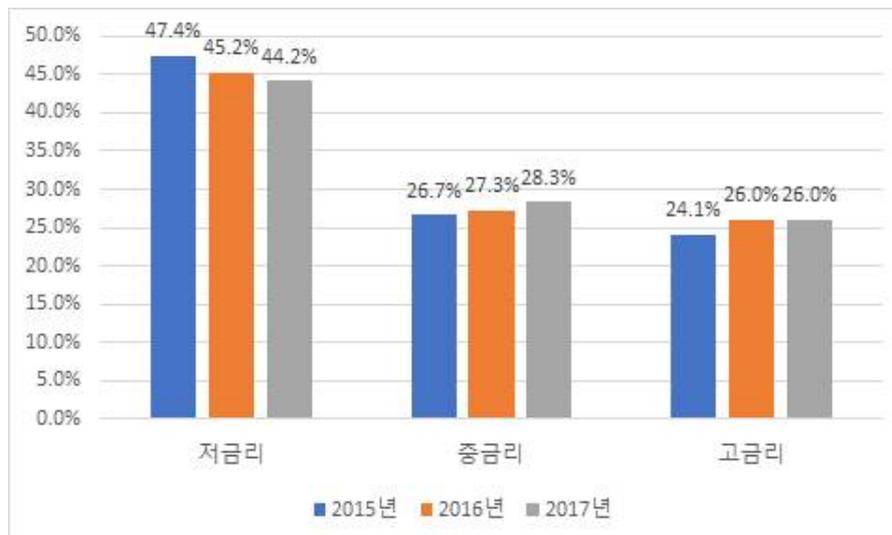
14) <표 4>의 “해당없음”은 신용등급 8등급에서 10등급 사이의 차주가 18% 미만의 이자율로 공여 받는 대출

15) 전 국민을 4,115만명으로 환산

위 그리고 대출이자율 추정 가능 자료의 편의성 등의 문제 등으로 본 샘플을 기반으로 한 추정치는 전체 총량을 과소 추정되고 있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금융기관들이 직접적인 이자율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본 자료가 이용 가능한 최선의 자료이며, 또한 전체 총량이 아니라 금리대별 비중을 살펴보는 등의 분석에는 이러한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전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과연 최근 들어 중금리 대출 시장의 규모가 증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대출 건수를 중심으로 금리대 별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8>과 같다. 중금리 시장은 대출 건수의 측면에서 2016년 한 해 동안의 신규 대출의 26.7% 비중을 차지하던 것이 2016년에는 27.3%로 증가하였고 2017년 상반기의 경우에는 28.3%로 더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체 신규 신용대출에서 중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년 반 전에 비하여 1.6%포인트나 늘어나 최근 들어 중금리대 시장이 확대되어 온 것을 우리의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출 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고금리 대출 역시 2015년에 비해 최근 그 비중이 확대되었다. 반면에 저금리 대출의 비중은 2015년 47.4%에서 2017년 상반기 44.2%로 2.2%포인트 하락하여, 중금리 및 저금리 대출의 비중 증가를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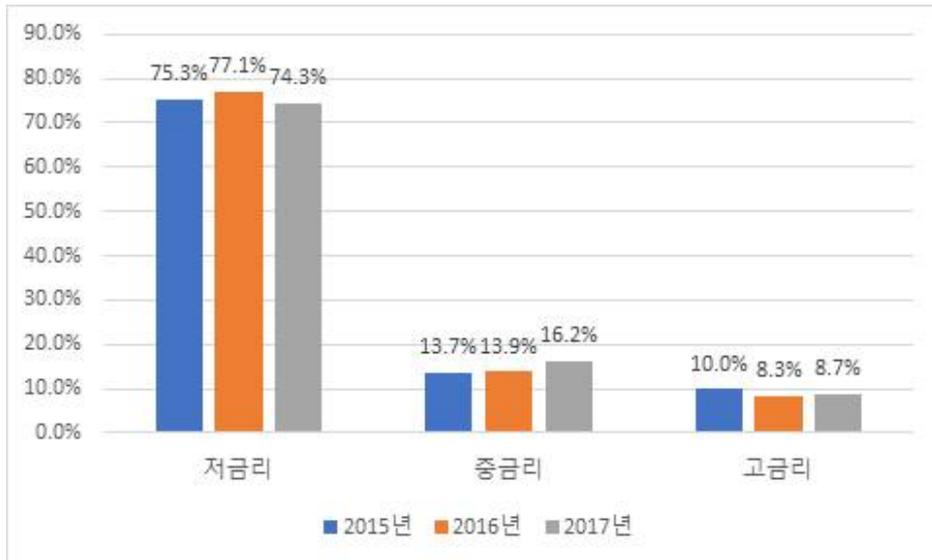
<그림 8> 대출 건수의 금리별 비중 추이



주: 2017년은 상반기 실적  
자료: NICE CB

이러한 중금리 대출의 최근 증가 추세는 대출 금액을 기준으로 한 금리대 별 비중의 추이를 나타내는 <그림 9>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중금리 시장은 대출 금액의 측면에서 2015년 한 해 동안의 신규 대출의 13.7% 비중을 차지하던 것이 2016년에는 13.9%로 증가하다가 2017년 상반기에 무려 16.2%로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전체 신규 신용대출에서 대출 금액 기준으로 중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년 반 전에 비하여 2.5%포인트나 늘어나 최근 들어 중금리대 시장이 확대되어 온 것을 역시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대출 건수와 달리 대출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고금리 대출의 비중은 2015년 10.0%에서 2017년 상반기 8.7%로 2.3%포인트 하락하였다. 저금리 대출의 경우 신용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대비 2016년 상승하다가 2017년 상반기 들어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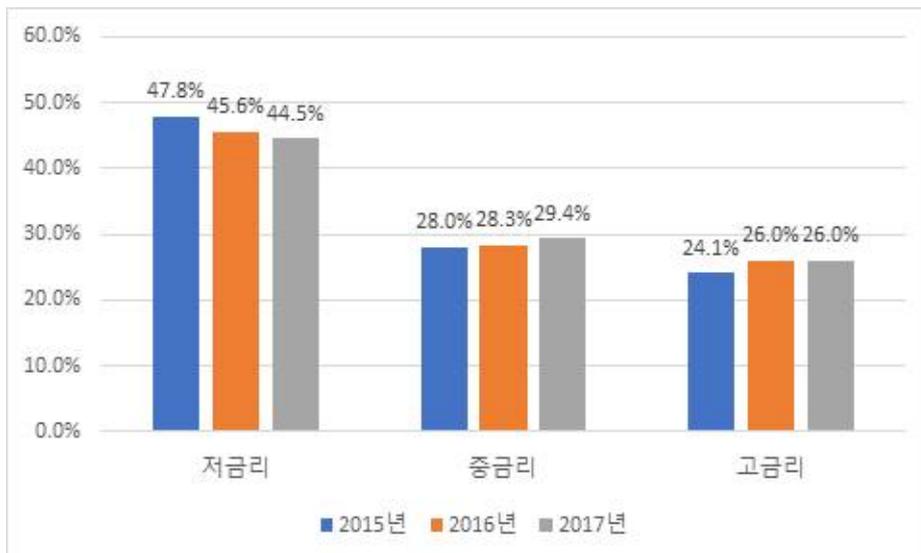
<그림 9> 대출 금액의 금리별 비중 추이



주: 2017년은 상반기 실적  
자료: NICE C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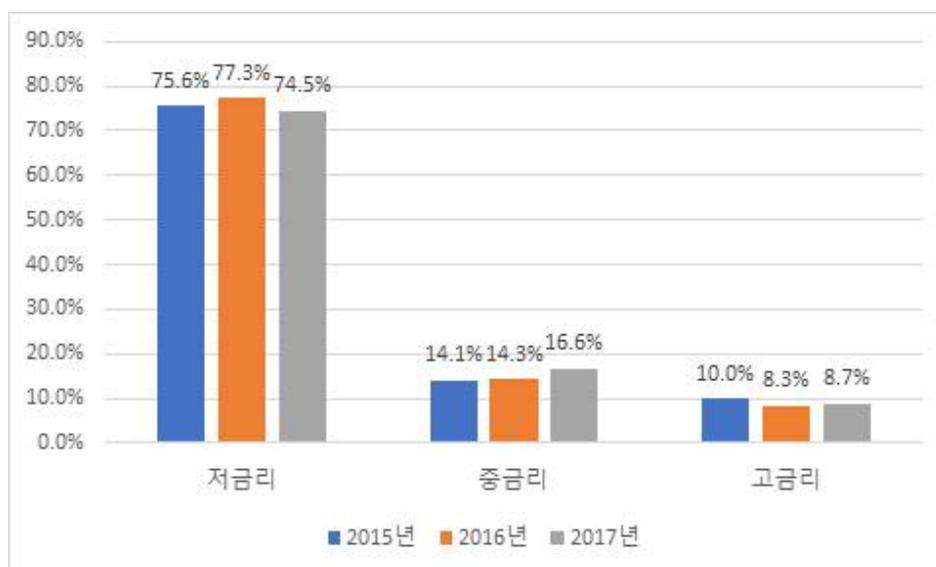
한편, 이러한 중금리 대출 시장의 확대 추이는 금리대 정의를 신용등급 구분 없이 이자율 6%미만의 모든 무담보 개인신용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이자율 6%에서 18%까지의 대출을 중금리 대출로 정의하는 경우에도 대출 건수와 대출 금액의 모든 측면에서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그림 10>과 <그림 11>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 대출 건수의 금리별 비중 추이



주: 2017년은 상반기 실적  
자료: NICE CB

<그림 11> 대출 금액의 금리별 비중 추이



주: 2017년은 상반기 실적  
 자료: NICE CB

#### IV. 중금리 대출과 금융안정

##### 1. 중금리 대출 증가와 금융권역간 경쟁 확대

본 장에서는 중금리 대출과 금융안정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중금리 대출 증가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거래 금융업권간의 이동 변화를 감안하는 다음의 분석모형을 추정하고자 한다. 금융권역간 고객 이동과 관련된 기존 연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금융권역별 고객 중복 정보 즉, 일정 시점에서의 대출자의 대출이 이루어진 업권의 개수 정보를 이용하여 분석이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중금리대출과 금융안정과의 관계를 고찰하는 본 연구에서 이러한 업권별 고객 중복을 살펴보는 이유는 업권별 경쟁의 정도가 심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금융권역별 고객 중복의 증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 경우 업권의 개수 정보는 특정 대출자의 대부분의 대출이 예를 들어 은행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매우 적은 금액만이 여타 업권 및 저축은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출자와 3개의 업권에서의 대출액이 비슷하게 분포되어 있는 대출자의 경우를 동일한 업권별 고객 중복의 정도로 측정하게 된다. 그러나 업권별 경쟁의 정도라는 측면에서는 양자의 차이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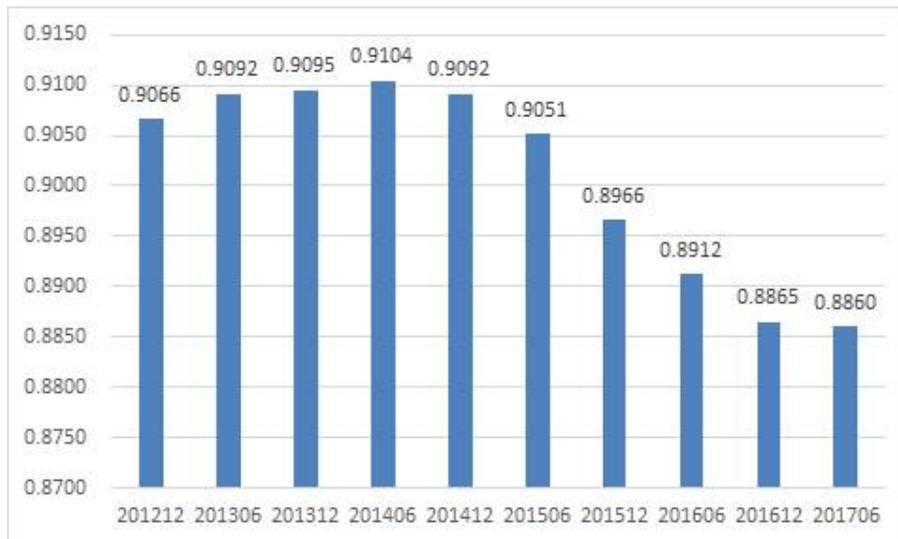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금융권역간의 경쟁이라는 개념에 보다 가까운 변수로써 대출의 개수만이 아니라 개별 대출의 금액 정보까지 고려한 다음의 HHI라는 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HHI_{it} = \sum_{k=1}^K w_{kit}^2 \dots\dots\dots (1)$$

이때  $w_{kit}$ 는  $t$ 시점에서 대출자  $i$ 의 총대출액 중  $k$ 업권에서 이루어진 대출의 비중을 나타낸

다. 이 경우 하나의 업권에서의 대출만 이루어지는 개인의 경우 HHI는 1의 값을 가지며, 여러 업권에서 균등하게 대출을 받을수록 HHI의 값은 낮아지게 된다. 이때 이러한 개인들의 평균 HHI의 값이 하락할수록 업권간의 실질적인 경쟁이 심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2> 차주 평균 HHI 추이



자료: NICE CB

<그림 12>의 경우 HHI의 평균치가 2014년 상반기까지는 상승하다가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HHI로 측정된 금융권역별 경쟁의 정도는 2014년 하반기 이후부터 업권간의 경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오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전 절에서 살펴본 각 업권에서의 중금리 시장의 확대 노력과 무관하지 않은 결과일 것이다. 즉,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중간 금리대의 신용대출이 은행권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및 여타 업권에서 동시에 공급되고 이러한 중금리 시장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HHI로 측정된 금융권역별 경쟁의 정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 2. 중금리 대출 증가와 금융안정

본장의 실증 분석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NICE CB의 100만 샘플 중 차주의 이자납입정보를 통해 유효한 대출 이자율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 샘플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 사이에 신규로 실행된 신용대출<sup>16)</sup> 중 2017년 6월말 현재 대출이 유지되고 있는 자료만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다만 중금리 대출과 금융안정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개별 대출자의 연체 여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므로 개별 대출건을 중심으로 분석하기보다는 개별 차주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다.

이 경우 특정 신용대출자의 경우 특정 기간 또는 시점에서 다수의 대출을 보유할 수 있다. 동일한 개인이 보유한 개별 대출들은 대출 발생 시점, 대출의 규모, 대출 금융 기관 등에 따라 각각 상이한 이자율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여러 대출을 보유한 개인의 경우 각 대출 시

16) 카드론 등을 포함

점에서의 신용 등급 또한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신용등급의 경우 <그림 10> <그림 11>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간 금리 신용대출자 중 8등급에서 10등급의 저신용 등급 대출자의 영향이 매우 작으므로, 본 장에서는 금리대별 시장의 정의를 신용등급을 고려하지 않고 이자율 수준만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저금리 대출은 6%미만, 중금리 대출은 6%에서 18%사이, 그리고 고금리 대출은 18%이상의 이자율을 가지는 신용 대출로 정의한다.

또한 개별 대출자가 상이한 여러 수준의 이자율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개별 대출자의 평균 신용대출 이자율을 기준으로 저금리, 중금리, 고금리 대출자를 정의하는 것일 것이다. <표 5>는 이러한 평균 금리를 기준으로 대출자를 정의했을 때 차주 수를 기준으로 2016년 6월말 대비 2017년 6월말에 신용대출 평균 이자율이 동학적으로 어떻게 이동하였는지를 보여준다. <표 5>에 의하면 2017년 6월말 현재 전체 신규 신용대출 중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가 35.1%, 중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가 46.4%,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가 18.5%에 해당한다. 또한 중금리 대출자 중 77%<sup>17)</sup>는 일년전에도 평균 금리가 중금리 수준이었던 차주인 반면, 9%는 일년전에는 평균 금리가 저금리 수준으로 낮았다가 현재 중금리 수준으로 상승했고, 15%는 평균 금리가 고금리 수준에서 현재 중금리 수준으로 하락한 차주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금리대 구간으로의 이동 비중이 무시하지 않을 정도의 규모이므로, 이 후 분석에서는 현재의 중금리 대출자 여부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금리대 이동 여부도 고려함으로써 중금리 대출 시장의 확대에 인하여 기존에 중금리 대출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새롭게 중금리 대출 시장으로 진입하게 되는 경우의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표 5> 평균 금리 구간 전이 행렬

단위: %

		2017년 6월말			
		저금리	중금리	고금리	소계
2016년 6월말	저금리	30.6	4.1	0.3	35.0
	중금리	4.1	35.5	6.7	46.3
	고금리	0.4	6.8	11.6	18.7
	소계	35.1	46.4	18.5	100.0

주: 차주 수 기준

자료: NICE CB

한편 대출자가 속하는 금리 시장의 정의를 평균 대출금리가 아니라 대출자의 대출 금리 중 최고 이자율을 기준으로 저금리, 중금리, 고금리 대출자로 정의할 수도 있다. 이는 결국 대출자가 기존 대출에서 추가로 의미 있는 수준의 대출을 하고자 할 경우 감내해야 하는 금리대에 해당하므로 이하에서는 한계 금리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표 6>은 이러한 한계 금리를 기준으로 대출자를 정의했을 때 차주 수를 기준으로 2016년 6월말 대비 2017년 6월말에 신용대출 한계 이자율이 동학적으로 어떻게 이동하였는지를 보여준다. <표 6>에 의하면 2017년 6월말 현재 전체 신규 신용대출 중에서 저금리 대출만을 받고 있는 차주가 29.9%, 최고 금리 수준이

17) =35.5%/46.4%

중금리대인 차주가 43.7%, 고금리 대출이 하나라도 있는 차주가 26.4%에 해당한다. 또한 한계 금리 기준에서의 중금리 대출자 중 73%는 일년전에도 한계 금리가 중금리 수준이었던 차주인 반면, 9%는 일년전에는 한계 금리가 저금리 수준으로 낮았다가 현재 중금리 수준으로 상승했고, 18%는 한계 금리가 고금리 수준에서 현재 중금리 수준으로 하락한 차주이다. 한계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평균 금리 기준에 비하여 현재 중금리 대출자 중 최근 1년 사이에 금리 하락을 경험한 대출자의 비중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6> 한계 금리 구간 전이 행렬

단위: %

		2017년 6월말			
		저금리	중금리	고금리	소계
2016년 6월말	저금리	25.6	4.1	1.1	30.8
	중금리	3.3	31.9	8.3	43.5
	고금리	1.0	7.7	17.1	25.7
	소계	29.9	43.7	26.4	100.0

주: 차주 수 기준  
 자료: NICE CB

본 장의 이후 분석으로 중금리 시장의 확대 및 경쟁의 심화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차주의 연체 유무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종속변수  $Y$ 로 하는 로짓(Logit) 모형을 추정하고자 한다. 차주의 연체를 설명하는 개인의 상환 능력과 관련된 여러 변수들을 통제 후 추가적으로 중금리 시장의 확대 및 경쟁의 심화가 차주의 연체 확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차주가 대출을 연체하는 주된 이유는 차주의 상환 능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차주의 연령, 소득, 대출금리, 신용대출 및 총대출 규모의 설명변수를 이용하여 차주의 연체 확률을 설명하는 Logit 모형을 기본모형으로 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통제변수  $Z$ 에 더하여 대출금액을 고려한 업권간 다중채무 지표인 HHI를 모형의 설명변수  $X$ 로 추가하여 분석함으로써 중금리 대출 시장의 확대 및 경쟁 심화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금리 대출 시장의 확대 및 경쟁의 심화는 경제 전체의 전반적인 HHI의 하락을 의미하므로, 개별 대출자의 HHI의 증가가 그 차주의 연체 확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중금리 대출 시장 확대 및 경쟁 심화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Y_i = \beta_0 + \beta_1 Z_i + \beta_2 X_i + \epsilon_i \quad \dots\dots\dots (2)$$

본 연구에서는 이와 더불어 HHI를 포함한 다른 변수들이 연체 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이후에, 대출자가 평균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공여 받거나, 또는 평균적으로는 더 낮은 금리를 이용하더라도 현재 자신이 지불하는 최고 금리가 중금리대 대출인 경우 다른 대출자에 비하여 이들의 연체 확률 및 HHI의 계수에 어떠한 영향을 추가적으로 미치는지를 분석하려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중금리 대출 시장이 확대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확

인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각 모형은 이렇게 정의된 각각의 더미변수  $D$ 만을 추정식에 포함시키거나, 더미변수와 HHI의 교차항만을 포함시키거나, 이 둘을 동시에 포함시키는 세 경우에 대한 추정 결과를 보고하였다.

$$\begin{aligned}
 Y_i &= \beta_{10} + \beta'_{11}Z_i + \beta_{12}X_i + \beta'_{13}D_i + \epsilon_i \\
 Y_i &= \beta_{20} + \beta'_{21}Z_i + \beta_{22}X_i + \beta'_{23}X_iD_i + \epsilon_i \\
 Y_i &= \beta_{30} + \beta'_{31}Z_i + \beta_{32}X_i + \beta'_{33}D_i + \beta'_{34}X_iD_i + \epsilon_i \quad \dots\dots\dots (3)
 \end{aligned}$$

우선 <표 7>은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들의 기초 통계량을 보여준다.

<표 7> 변수들의 기초 통계량

변수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b>연체</b>	131,559	0.008	0.1	0.0	1.0
<b>연령</b>	131,474	41.1	11.8	20.0	70.0
<b>소득</b>	131,226	8.2	0.5	6.9	10.0
<b>금리</b>	131,559	10.6	7.1	1.0	28.0
<b>신용대출</b>	131,559	2.4	1.2	-3.1	6.4
<b>총대출</b>	131,476	3.6	1.4	-3.1	8.6
<b>HHI</b>	130,056	8.3	2.4	1.0	10.0
<b>A중</b>	131,559	0.2997	0.5	0	1
<b>M중</b>	131,533	0.2808	0.4	0	1
<b>A저중</b>	131,559	0.0266	0.2	0	1
<b>A중중</b>	131,559	0.2299	0.4	0	1
<b>A고중</b>	131,559	0.0432	0.2	0	1
<b>M저중</b>	131,533	0.0281	0.2	0	1
<b>M중중</b>	131,533	0.2064	0.4	0	1
<b>M고중</b>	131,533	0.0463	0.2	0	1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연체** 변수는 특정 개인이 2017년 6월말 현재 30일 이상 기준의 미해제 CB 연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 변수이다. 이러한 종속변수를 설명하기 위한 통제변수로 **연령**은 대출자의 연령대를 나타내며 십년 단위로 표시된 10, 20, 30 등의 값을 갖는다. **소득**은 백만원 단위로 끊어서 만원 단위로 표시된 NICE 추정<sup>18)</sup> 연소득의 자연로그값을 사용한다. **금리**는 %로 표시된 신용대출 추정 금리대로 1, 2, 3 등의 값을 갖는다. **신용대출**

18)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실제소득 정보 이외의 소득은 신용정보, 식별정보, 부동산정보 등을 이용하여 CB에서 추정

은 백만원 단위로 표시된 차주의 신용대출 잔액에 자연로그값을 사용하고, **총대출** 역시 백만원 단위로 표시된 총대출액 잔액에 자연로그값을 사용한다. 설명변수인 **HHI**의 경우 식 (3)에서 정의된 수식에 따라 계산된 수치에 10을 곱한 값을 사용한다. 계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은행, 신용카드사, 캐피탈, 보험, 상호금융<sup>19)</sup>, 저축은행, 기타<sup>20)</sup>의 7개 업권으로 구분하여 신용대출의 각 업권별 비중을 통해 수치를 산출하였다. **A중**은 2017년 6월말 현재 차주의 평균 대출금리가 중금리대에 속하는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 변수이다. **M중**은 2017년 6월말 현재 차주의 대출금리 중 최고치가 중금리대에 속하는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 변수이다. **A저중, A중중, A고중**은 차주의 평균 대출금리가 2016년 6월말 대비 2017년 6월말 현재 각각 저금리에서 중금리, 중금리에서 중금리, 고금리에서 중금리로 변화된 경우에 1의 값을 갖는 더미 변수이다. 마지막으로 **M저중, M중중, M고중**은 차주의 대출금리 중 최고치가 2016년 6월말 대비 2017년 6월말 현재 각각 저금리에서 중금리, 중금리에서 중금리, 고금리에서 중금리로 변화된 경우에 1의 값을 갖는 더미 변수이다.

한편,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이러한 설명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설명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설명변수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내는 <표 8>에서 보이듯이 통제변수 및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대부분 낮게 나타났다. 또한 설명변수간의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역시 <표 9>에서 나타나듯이 2를 넘지 않는 값으로 측정되어 설명변수간의 공선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설명변수간의 상관계수

	연령	소득	금리	HHI	신용대출	총대출
연령	1.000					
소득	0.115	1.000				
금리	-0.002	-0.255	1.000			
HHI	-0.002	0.087	-0.324	1.000		
신용대출	-0.046	0.339	-0.383	-0.064	1.000	
총대출	0.024	0.351	-0.302	-0.115	0.581	1.000

<표 9> 설명변수간의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연령	소득	금리	HHI	신용대출	총대출
1.025	1.232	1.402	1.207	1.689	1.621

<표 10>는 대출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출의 이자율 평균이 6%에서 18% 사이의 중금리 구간에 속하는지의 여부가 그 대출자의 연체 확률에 어떠한 영향을 추가로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더미변수 **A중**을 모형에 포함시킨 Logit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이다. 표의 모형

19) 새마을금고, 단위조합, 신협 등

20) 대부업 포함

1-1은 이러한 더미변수만을 모형에 포함시켰고, 모형 1-2는 더미변수와 *HHI*와의 교차항만을 고려한 반면, 모형 1-3은 이 둘을 동시에 포함시켜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우선 3개의 모든 모형에 있어서 **총대출**을 제외한 다른 모든 통제변수들은 개인의 연체 확률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부호 또한 사전적 예상과 일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자산 형성이 적게 이루어져 연체 확률이 더 큰 편인 반면, 소득은 차주의 상환 능력의 대용 변수로 낮을수록 연체 보유 확률이 증가할 것이다. <표 10>의 추정 결과는 3개의 모형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연체 확률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대출 금리 수준이 더 낮을수록 이는 차주의 신용도가 더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금리** 수준은 연체 확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실제 추정 결과에서도 **금리** 수준이 높은 개인일수록 연체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사한 이유로 신용 대출의 규모가 더 클수록 이는 차주의 신용도가 더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양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3개 모형 모두에서 **신용대출**의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총대출** 규모의 경우 3개 모형 모두에서 연체 확률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지 않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총대출액이 크면 상환 부담이 높아지지만, 이중에는 담보성 대출 또는 증빙 소득이 높은 차주가 혼재되어 있어 연체 확률과는 특정 방향으로의 관계를 가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표 10> Logit 모형 추정 계수 (평균 금리 수준)

	모형 1-1	모형 1-2	모형 1-3
<b>상수</b>	-0.262 (0.6626)	-0.2048 (0.7319)	-0.1275 (0.8328)
<b>연령</b>	-0.0062** (0.0270)	-0.0063** (0.0243)	-0.0063** (0.0245)
<b>소득</b>	-0.1626** (0.0295)	-0.1615** (0.0307)	-0.1619** (0.0303)
<b>금리</b>	0.0121** (0.0166)	0.0118** (0.0195)	0.0110** (0.0308)
<b>신용대출</b>	-0.5011*** (0.0001)	-0.4988*** (0.0001)	-0.4975*** (0.0001)
<b>총대출</b>	0.0189 (0.4848)	0.0195 (0.4713)	0.0195 (0.4701)
<b>HHI</b>	-0.3168*** (0.0001)	-0.3277*** (0.0001)	-0.3366*** (0.0001)
<b>A중</b>	0.1602** (0.0164)		-0.1520 (0.3726)
<b>HHI×A중</b>		0.0298*** (0.0026)	0.0506*** (0.0455)
표본수	129741	129741	129741
AIC	11637.83	11637.83	11637.83
SC	11647.6	11647.6	11647.6
-2LogL	11635.83	11635.83	11635.83
Likelihood ratio	1011.057	1015.031	1015.031
KS	0.4184	0.4184	0.4184

주: ( )는 p값임. \*는 p<0.10, \*\*는 p<0.05, \*\*\*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함

한편, 모형 1-1, 모형 1-2, 모형1-3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HHI**의 증가는 차주의 연체 발생 확률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고 있음을 또한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연체와 관련된 다른 설명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이후, 대출 금액의 비중을 고려한 업권별 다중 채무의 정도가 심한 사람의 경우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연체 발생 확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중금리 대출 시장의 확대 및 경쟁의 심화는 경제 전체의 전반적인 **HHI**의 하락을 의미하므로 이는 결국 경제 전체의 전반적인 연체 발생 확률의 증가를 시사한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대출 금리가 중금리 구간에 속하는지의 여부인 **A중**이 연체 확률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모형 1-1의 추정치에 의하면 평균 대출금리가 중금리 구간에 속하는 대출자는 다른 대출자에 비하여 연체 확률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A중**과 **HHI**와의 교차항을 모형에 추가하는 경우 모형 1-3에서 보듯이 계수의 유의성이 사라지게 된다. 즉, 평균 대출 금리가 중금리 수준인 대출자의 연체 확률의 크기는 모형의 설정에 따라, 현재 평균 대출금리가 중금리가 아닌 대출자에 비하여, 더 높거나 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모형 1-2와 모형 1-3에 의하면 **A중**과 **HHI**와의 교차항의 계수는 **A중** 변수의 유무와 무관하게 항상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균 대출 금리가 중금리 수준인 대출자의 대출 금액의 비중을 고려한 업권별 다중 채무 증가에 따른 연체 발생 확률 상승 정도는 현재 평균 대출 금리가 중금리가 아닌 사람들에 비하여 모형의 설정에 무관하게 항상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는 대출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출의 이자율 중 최고치가 6%에서 18% 사이의 중금리 구간에 속하는지의 여부가 그 대출자의 연체 확률에 어떠한 영향을 추가로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더미변수 **M중**을 모형에 포함시킨 Logit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이다. 표의 모형 2-1은 이러한 더미변수만을 모형에 포함시켰고, 모형 2-2는 더미변수와 **HHI**와의 교차항만을 고려한 반면, 모형 2-3은 이 둘을 동시에 포함시켜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우선 앞의 **A중**을 포함한 모형의 결과와 동일하게 3개의 모든 모형에 있어서 **총 대출**을 제외한 다른 모든 통제변수들은 개인의 연체 확률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부호 또한 사전적 예상과 일치하고 있다. 또한 모형 2-1, 모형 2-2, 모형 2-3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앞의 **A중**을 포함한 모형의 결과와 동일하게 **HHI**의 증가는 차주의 연체 발생 확률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계 금리가 중금리 구간에 속하는지의 여부인 **M중**이 연체 확률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M중**만을 모형에 추가하거나 **M중**과 **HHI**와의 교차항만을 모형에 추가하는 경우 각각의 계수는 모두 유의하지 않게 추정됨을 모형 2-1과 모형 2-2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모형에 **M중**뿐 아니라 **M중**과 **HHI**와의 교차항을 동시에 추가하는 경우에는 두변수의 계수가 모두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모형 2-3에서 보듯이 **M중**의 계수는 음의 값을, 교차항의 계수는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유의하게 추정되었다. 즉 현재 한계 대출 금리가 중금리가 아닌 대출자에 비하여 한계 대출 금리가 중금리인 대출자의 연체율이 더 낮게 나타나며, 대출 금액의 비중을 고려한 업권별 다중 채무 증가에 따른 연체 발생 확률 상승 정도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Logit 모형 추정 계수 (한계 금리 수준)

	모형 2-1	모형 2-2	모형 2-3
<b>상수</b>	-0.0789 (0.8954)	-0.1778 (0.7667)	0.1777 (0.7681)
<b>연령</b>	-0.0057** (0.0431)	-0.0059** (0.0349)	-0.0060** (0.0339)
<b>소득</b>	-0.1674** (0.0251)	-0.1632** (0.0292)	-0.1635** (0.0287)
<b>금리</b>	0.0093** (0.0651)	0.0110** (0.0289)	0.0073 (0.1528)
<b>신용대출</b>	-0.5009*** (0.0001)	-0.5019*** (0.0001)	-0.4958*** (0.0001)
<b>총대출</b>	0.0158 (0.5616)	0.0187 (0.4908)	0.0171 (0.5299)
<b>HHI</b>	-0.3228*** (0.0001)	-0.3232*** (0.0001)	-0.3641*** (0.0001)
<b>M중</b>	-0.0585 (0.4090)		-0.9012*** (0.0001)
<b>HHI×M중</b>		0.0129 (0.2132)	0.1348*** (0.0001)
표본수	129716	129716	129716
AIC	11608.24	11608.24	11608.24
SC	11618.01	11618.01	11618.01
-2LogL	11606.24	11606.24	11606.24
Likelihood ratio	998.3208	999.1667	1024.041
KS	0.4152	0.4152	0.4216

주: ( )는 p값임. \*는 p<0.10, \*\*는 p<0.05, \*\*\*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함

<표 12>은 평균 금리의 관점에서 현재 중금리대에 속하는 대출자가 과거에 어느 금리 구간에 속하였는지가 그 대출자의 연체 확률에 어떠한 영향을 추가로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3개의 더미변수 **A저중**, **A중중**, **A고중**을 모형에 포함시킨 Logit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이다. 표의 모형 3-1은 이러한 더미변수만을 모형에 포함시켰고, 모형 3-2는 더미변수와 **HHI**와의 교차항만을 고려한 반면, 모형 3-3은 이 둘을 동시에 포함시켜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우선 앞 모형들의 결과와 동일하게 3개의 모든 모형에 있어서 **총대출**을 제외한 다른 모든 통제변수들은 개인의 연체 확률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부호 또한 사전적 예상과 일치하고 있다. 또한 모형 3-1, 모형 3-2, 모형 3-3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앞의 분석과 동일하게 여전히 **HHI**의 증가는 차주의 연체 발생 확률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더미 변수와 관련한 계수의 경우에는 모형에 따라 통계적인 유의성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더미변수만 고려한 모형 3-1의 경우 신용대출의 평균 금리의 관점에서 과거에 저금리로 대출을 받다가 현재에는 중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 현재 평균 대출 금리가 중금리가 아닌 사람들에 비하여, 연체 발생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과거에 평균 대출 금리가 고금리 수준이었다가 현재에는 중금리로 하락한 사람들의 경우도, 현재 평균 대출 금리가 중금리가 아닌 사람들에 비하여, 연체 발생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과거에 비해 평균 대출 금

리의 수준이 급격한 변화가 없어서 여전히 평균적으로 중금리대의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현재 평균 대출 금리가 중금리가 아닌 사람들에 비하여, 연체 발생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에 더미변수와 *HHI*의 교차항만을 고려한 모형 3-2의 경우 과거에 저금리로 대출을 받다가 현재에는 중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 현재 평균 대출 금리가 중금리가 아닌 사람들에 비하여, *HHI*가 연체 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낮음을 보여준다. 즉 현재 평균 대출 금리가 중금리가 아닌 사람들에 비하여 저금리에서 중금리로 평균 이자율이 상승한 사람의 경우, 대출 금액의 비중을 고려한 업권별 다중 채무의 정도 증가에 따른 연체 발생 확률 상승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낮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과거에 고금리에서 중금리로 평균 이자율이 하락하거나 동일한 중금리대의 평균 이자율을 지불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HHI*가 연체 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 평균 대출 금리가 중금리가 아닌 사람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표 12> Logit 모형 추정 계수 (평균 금리 변화)

	모형 3-1	모형 3-2	모형 3-3
<b>상수</b>	-0.2921 (0.6286)	-0.2594 (0.6659)	-0.1870 (0.7589)
<b>연령</b>	-0.0058** (0.0397)	-0.006** (0.0320)	-0.0058*** (0.0393)
<b>소득</b>	-0.1600** (0.0324)	-0.1574** (0.0354)	-0.1583** (0.0344)
<b>금리</b>	0.0135** (0.0149)	0.0142*** (0.0084)	0.0123** (0.0293)
<b>신용대출</b>	-0.4988*** (0.0001)	-0.4998*** (0.0001)	-0.4966*** (0.0001)
<b>총대출</b>	0.0137 (0.6124)	0.0164 (0.5453)	0.0146 (0.5911)
<b>HHI</b>	-0.3194*** (0.0001)	-0.3297*** (0.0001)	-0.3358*** (0.0001)
<b>A저중</b>	1.0102*** (0.0001)		1.2176*** (0.0073)
<b>A중중</b>	0.0352 (0.6532)		-0.5168** (0.0105)
<b>A고중</b>	0.2743** (0.0171)		0.5999** (0.0253)
<b>HHI×A저중</b>		0.1211*** (0.0001)	-0.0318 (0.6120)
<b>HHI×A중중</b>		0.0181 (0.1129)	0.0889** (0.0021)
<b>HHI×A고중</b>		0.0281 (0.1511)	-0.0655 (0.1715)
표본수	129,741	129,741	129,741
AIC	11637.83	11637.83	11637.83
SC	11647.6	11647.6	11647.6
-2LogL	11635.83	11635.83	11635.83
Likelihood ratio	1039.687	1063.015	1053.9464
KS	0.4224	0.4224	0.4232

주: ( )는 p값임. \*는 p<0.10, \*\*는 p<0.05, \*\*\*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함

마지막으로 더미변수 자체와 *HHI*와의 교차항을 동시에 고려한 모형 3-3의 경우 모형 3-1과 유사하게 신용대출의 평균 금리의 관점에서 과거에 저금리나 고금리로 대출을 받다가 현재에는 중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 현재 평균 대출 금리가 중금리가 아닌 사람들에 비하여, 연체 발생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모형 3-3의 경우에는 모형 3-1과 달리 과거에 비해 평균 대출 금리의 수준이 급격한 변화가 없어서 여전히 평균적으로 중금리대의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현재 평균 대출 금리가 중금리가 아닌 사람들에 비하여, 연체 발생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형 3-3의 경우 모형 3-2와 달리 동일한 중금리대의 평균 이자율을 지불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현재 평균 대출 금리가 중금리가 아닌 사람들에 비하여, *HHI*가 연체 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낮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과거에 고금리에서 중금리로 평균 이자율이 하락한 사람뿐만 아니라 과거에 저금리로 대출을 받다가 현재에는 중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현재 평균 대출 금리가 중금리가 아닌 사람들에 비하여, *HHI*가 연체 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 평균 대출 금리가 중금리가 아닌 사람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표 13>은 한계 금리의 관점에서 현재 중금리대에 속하는 대출자가 과거에 어느 금리 구간에 속하였는지의 여부가 그 대출자의 연체 확률에 어떠한 영향을 추가로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3개의 더미변수 *M저중*, *M중중*, *M고중*을 모형에 포함시킨 Logit 모형의 회귀분석 결과이다. 표의 모형 4-1은 이러한 더미변수만을 모형에 포함시켰고, 모형 4-2는 더미변수와 *HHI*와의 교차항만을 고려한 반면, 모형 4-3은 이 둘을 동시에 포함시켜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우선 앞 모형들의 결과와 유사하게 3개의 모든 모형에 있어서 **총대출**을 제외한 다른 모든 통제변수들은 개인의 연체 확률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부호 또한 사전적 예상과 일치하고 있다. 다만 더미 변수와 교차항을 동시에 포함한 모형 4-3의 경우에는 **금리**의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형 4-1, 모형 4-2, 모형 4-3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전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여전히 *HHI*의 증가는 차주의 연체 발생 확률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계 금리를 기준으로 정의된 더미 변수와 관련한 계수의 경우에는 모형에 따라 통계적인 유의성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우선 더미변수만 고려한 모형 4-1은 한계 금리의 관점에서 현재 금리가 중금리인 사람들의 경우, 과거의 금리 수준에 무관하게, 현재 한계 금리가 중금리가 아닌 사람들과 연체 발생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에 더미변수와 *HHI*의 교차항만을 고려한 모형 4-2의 경우 과거에 저금리로만 대출을 받다가 현재에는 중금리 대출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현재 한계 대출 금리가 중금리가 아닌 사람들에 비하여, *HHI*가 연체 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낮음을 보여준다. 즉 현재 보유한 대출의 금리 중 최고치가 6%보다 낮거나 18%보다 높은 사람들에 비하여, 보유 대출의 최고 금리가 과거에 6% 이하였다가 현재는 6%에서 18% 사이에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대출 금액의 비중을 고려한 업권별 다중 채무의 정도 증가에 따른 연체 발생 확률 상승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낮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고금리에서 중금리로 한계 이자율이 하락하거나 동일한 중금리대의 한계 이자율을 지불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HHI*가 연체 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 한계 대출 금리가 중금리가 아닌 사람들

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더미변수 자체와 *HHI*와의 교차항을 동시에 고려한 모형 4-3의 경우 모형 4-1과 달리 저금리에서 중금리로 한계 이자율이 상승하거나 동일한 중금리대의 한계 이자율을 지불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현재 한계 대출 금리가 중금리가 아닌 사람들에 비하여, 연체 발생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낮음을 보여준다. 또한 모형 4-3의 경우 모형 4-2와 달리 과거에 저금리로만 대출을 받다가 현재에는 중금리 대출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뿐만 아니라 과거와 동일하게 중금리대의 한계 이자율을 지불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도 현재 한계 대출 금리가 중금리가 아닌 사람들에 비하여, *HHI*가 연체 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한계 이자율이 관점에서 과거에 고금리로 대출을 받다가 현재에는 중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모형 5와 동일하게, *HHI*가 연체 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현재 한계 대출 금리가 중금리가 아닌 사람들과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표 13> Logit 모형 추정 계수 (한계 금리 변화)

	모형 4-1	모형 4-2	모형 4-3
<b>상수</b>	-0.0909 (0.8797)	-0.1904 (0.7506)	0.1743 (0.7722)
<b>연령</b>	-0.0056** (0.0448)	-0.0058** (0.0380)	-0.0060** (0.0337)
<b>소득</b>	-0.1675** (0.0250)	-0.1639** (0.0284)	-0.1639** (0.0281)
<b>금리</b>	0.0101** (0.0482)	0.0125** (0.0139)	0.0078 (0.1292)
<b>신용대출</b>	-0.5009*** (0.0001)	-0.5017*** (0.0001)	-0.4936*** (0.0001)
<b>총대출</b>	0.0152 (0.5751)	0.0169 (0.5327)	0.0148 (0.5853)
<b>HHI</b>	-0.3227*** (0.0001)	-0.3235*** (0.0001)	-0.3636*** (0.0001)
<b>M저중</b>	0.1066 (0.6081)		-2.8644*** (0.0002)
<b>M중중</b>	-0.0465 (0.5545)		-0.8621*** (0.0001)
<b>M고중</b>	-0.1663 (0.2493)		-0.3117 (0.3909)
<b>HHI×M저중</b>		0.0666** (0.0112)	0.4107*** (0.0001)
<b>HHI×M중중</b>		0.0141 (0.2211)	0.1296*** (0.0001)
<b>HHI×M고중</b>		-0.0223 (0.3537)	0.0210 (0.7275)
표본수	129,716	129,716	129,716
AIC	11608.24	11608.24	11608.24
SC	11618.01	11618.01	11618.01
-2LogL	11606.24	11606.24	11606.24
Likelihood ratio	999.5884	1005.469	1040.07
KS	0.4168	0.4168	0.4248

주: ( )는 p값임. \*는 p<0.10, \*\*는 p<0.05, \*\*\*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함

한편 민감도 분석을 위하여 모형 3-3과 모형 4-3에 신용정보부족(Thin file)<sup>21)</sup> 여부 더미 변수를 추가하여 모형을 추정하여 보았다. 다른 차주에 비하여 연체 판단 관련 신용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 그룹의 대출자의 경우 연체 확률에 대하여도 다른 양태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수의 추가가 전체 회귀 분석의 결과를 크게 바꾸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신용정보부족 대출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여 연체 확률이 모형 3-3에서는 통계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으나 모형 4-3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성이 확보되지 못하였고 다른 변수들의 경우에는 이전 분석과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을 부록의 <표 A1>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 V. 결론

미시 자료를 이용한 이상의 분석 결과, 전체 신규 신용대출에서 중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년 반 전에 비하여 건수 기준으로 1.6%포인트, 금액 기준으로 2.5%포인트나 늘어나 최근의 중금리 대출 시장의 확대를 수치로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지금은 중금리 대출시장의 절대적인 규모가 크지 않아서 중금리 대출시장 자체의 문제로 인하여 금융안정이 위협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향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중금리 대출시장의 과소공급 문제가 없어지게 될 정도로 시장 규모가 크게 될 경우 기존과 상이한 중금리 대출시장의 특성으로 인한 추가적인 금융안정의 위협 요인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지를 예상해보는 노력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금융권역간의 경쟁이라는 개념에 보다 가까운 변수로써 대출의 개수만이 아니라 개별 대출의 금액 정보까지 고려한 HHI 지표의 경우 2014년 하반기부터 지속적 하락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를 본 논문에서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중간 금리대의 신용대출이 은행권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및 여타 업권에서 동시에 공급되고 이러한 중금리 시장의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HHI 지표로 측정된 금융권역별 경쟁의 정도는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고 해석하였다.

이어서 Logit 회귀 분석을 이용하여 개별 대출자의 HHI 지표의 증가가 그 차주의 연체 확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중금리 대출 시장 확대 및 경쟁 심화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확인하고, 이에 추가하여 대출자가 평균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공여 받거나, 또는 자신이 지불하는 최고 금리가 중금리대 대출인 경우 다른 대출자에 비하여 이들의 연체 확률 및 HHI의 계수에 어떠한 영향을 추가적으로 미치는지의 분석을 통하여 중금리 대출 시장이 확대가 금융 안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확인하였다. 추정 결과 모든 모형에 있어서 총대출을 제외한 다른 모든 통제변수들은 개인의 연체 확률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부호 또한 사전적 예상과 일치하고 있다.

또한 모든 추정 모형에 있어서 여러 업권에 걸쳐 다중채무의 정도가 심한, 즉 HHI 지표가 더 낮은, 차주일수록 연체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금리 대출 시장의 확대 및 경쟁의 심화는 경제 전체의 전반적인 HHI 지표의 하락을 의미하므로 이는 결국 경제 전체의 전반적

21) 과거 대출 이력 정보 및 미사용 카드 정보를 가지고 있으나, 최근 유효한 금융 거래 정보가 없어 적절한 신용평가를 하기 어려운 자

인 연체 발생 확률의 증가를 시사한다 하겠다.

다만 미시적으로는 HHI 지표가 높다 하더라도 중금리 대출자의 여부 및 과거 대출 금리의 수준 등에 따라 이러한 영향의 크기가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선 중금리 차주집단 분석의 경우, 차주집단별로 HHI 지표 하락에 따른 연체율 상승폭을 살펴본 결과, 신용대출 전체의 평균금리가 6% 이상 18% 미만인 중금리 차주집단이 저금리 또는 고금리 차주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음을 발견하였다.

중금리 대출시장으로 이동한 차주집단 분석의 경우, 평균 대출금리 기준으로 과거 저금리 또는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으나 현재 중금리로 대출을 받고 있는 차주집단은 현재 저금리 또는 고금리 차주집단에 비해 연체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계속 중금리 대출을 받아온 차주집단은 현재 저금리 또는 고금리 차주집단에 비해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 차주집단의 경우 추가 대출로 인해 다중채무의 정도가 심해지더라도, 즉 HHI 지표가 하락하더라도, 연체율 상승폭이 여타 차주집단에 비해 작은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계대출금리가 중금리인 차주집단, 즉 기존 대출 이력에 관계없이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 중금리를 지급하게 되는 차주집단에 대한 분석도 병행하였다. 그 결과 우선 한계대출금리가 중금리인 차주집단은 중금리가 아닌 차주집단에 비해 연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금리 대출시장으로 이동한 차주집단 분석의 경우, 한계대출금리가 과거 저금리 또는 중금리로 대출받았던 차주가 이후 중금리 대출을 추가로 받은 경우 여타 차주집단에 비해 연체율이 낮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동 차주집단의 경우 추가 대출로 인해 다중채무의 정도가 심해지더라도, 즉 HHI 지표가 하락하더라도, 연체율 상승폭이 여타 차주집단에 비해 작게 나타났다. 반면에 과거 고금리로 대출받았던 차주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중금리 대출시장의 경쟁심화는 다중채무자를 증가시킴에 따라 전체적인 연체율을 높이는 측면이 있으나, 중금리 차주는 여타 차주에 비하여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중금리 대출 활성화 등 정책 추진 관점에서 중금리 차주 가운데 과거 저금리 대출 또는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부실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일반적으로 중금리 대출의 확대는 Multi Homer를 늘리고 이는 금융업권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Single Homer가 다수를 차지하는 저금리시장과 고금리시장으로 나뉘어진 금융시장에서는 고금리시장에 속하는 금융소비자의 부실이 저금리 시장으로 전이되는 연결고리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반면에 중금리 대출 상품의 도입과 확대는 Single Homer들을 Multi Homer로의 전환을 늘리고 이는 금융시장에서 시장 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Multi Homer에 의해 연계성이 높아진 금융시장은 시장간 부실의 전이도를 높이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차주의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부실은 이웃한 금융시장의 부실을 동시에 높이는 역할을 한다. 건전성 측면에서도 기존 Single Homer가 상대적으로 추가되는 업권간 시장의 차별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건전성 진단이 업권별로 가능하고 그 대응도 업권별로 차별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할 수 있겠다. 반면에 중금리대출의 확대로 Multi Homer가 상대적으로 늘어난 시장에서는 건전성의 진단과 대응책 마련에 업권간의 상호 연계성을 더 복잡하게 고려해야 하는 정책비용의 상승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이 된다.

## 부 록

<표 A1> Thin file 포함 모형

	모형 A1		모형 A2	
<b>상수</b>	-0.2465	(0.6866)	0.1277	(0.8324)
<b>연령</b>	-0.0055**	(0.0484)	-0.0058**	(0.0401)
<b>소득</b>	-0.1532**	(0.0410)	-0.1600**	(0.0323)
<b>금리</b>	0.0120**	(0.0329)	0.0077	(0.1369)
<b>신용대출</b>	-0.4979***	(0.0001)	-0.4947***	(0.0001)
<b>총대출</b>	0.0181	(0.5058)	0.0177	(0.5173)
<b>HHI</b>	-0.3370***	(0.0001)	-0.3645***	(0.0001)
<b>신용정보부족</b>	0.4054*	(0.0813)	0.3222	(0.1757)
<b>A저중</b>	1.2148***	(0.0075)		
<b>A중중</b>	-0.5174**	(0.0104)		
<b>A고중</b>	0.6013**	(0.0250)		
<b>HHI×A저중</b>	-0.0306	(0.6261)		
<b>HHI×A중중</b>	0.0902***	(0.0018)		
<b>HHI×A고중</b>	-0.064	(0.1818)		
<b>M저중</b>			-2.8656***	(0.0002)
<b>M중중</b>			-0.8624***	(0.0001)
<b>M고중</b>			-0.3126	(0.3897)
<b>HHI×M저중</b>			0.4117***	(0.0001)
<b>HHI×M중중</b>			0.1306***	(0.0001)
<b>HHI×M고중</b>			0.0221	(0.7136)
표본수	129741		129716	
AIC	11637.83		11608.24	
SC	11647.6		11618.01	
-2LogL	11635.83		11606.24	
Likelihood ratio	1056.659		1111.981	
KS	0.4248		0.4264	

주: ( )는 p값임. \*는 p<0.10, \*\*는 p<0.05, \*\*\*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함

## 참 고 문 헌

- 국회예산정책처, 「서민금융제도의 현황 및 발전 방안」, 2013.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2016)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 2016.1,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금융위원회(2016)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 보도자료, 2016.1,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2016) “은행·저축은행·사잇돌 I·II 중금리 대출’ 현황 및 조정·보완 방안”, 보도자료, 2016.11,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2017) “17.7.18일부터 ‘채무조정졸업자’전용 사잇돌 대출 출시”, 보도자료, 2017.7, 금융위원회
- 남주하, 「서민금융지원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2013.
- 남재현(2016), “중금리 대출 시장 현황과 신탁의 접근방안”, 『신탁연구』 제67호, 신탁중앙회
- 박창균(2014)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평가와 정책 방향”, 『응용경제』 제16권 제2호, 한국응용경제학회
- 손상호, 이재연, 「서민금융의 발전방향, 금융연구원」, 2013.
- 송준혁(2016) “중금리 시장의 도입이 가계의 상환부담 및 연체율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 제34권 제4호, 한국경제연구학회
- 정희수(2015) “중금리 대출시장의 실체와 바람직한 정책 방향”, 『Orange Report』, 2015, 9, KCB Research Center
- 정희수(2016) “중금리 대출시장 관련 주요 이슈 및 활성화 방안”, 『NICE Credit Insight』 2016 Spring, 2016, 3, NICE 평가정보 CB연구소
- 한국금융연구원, 「서민금융의 발전방향」, 2013.
- 한국은행(2015) 『금융안정보고서』, 2015. 12, 한국은행
- 한국채권연구원, 「중소서민금융기관 제도 선진화 및 기능 활성화 방안」, 2012.
- 한재준(2016) “중금리 신용대출 안착을 위한 과제”, 『주간 하나금융 포커스』 제6권 37호, 2016.9,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Medium-Yield Loans and Financial Stability

Jaihyun Nahm\*

## ABSTRACT

---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the expansion of competition on medium-yield loans on financial stability by using micro data held by CBs provided by individual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previous study, it was impossible to directly analyze the market because the interest rate information of individual loans was not disclosed. However, in this study, the borrower was identified using the estimated interest rate calculated from the interest payment information held by CBs.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expansion of the medium-yield loan market on the financial stability, a logit model using a dummy variable representing whether or not the borrower is overdue as a dependent variable was estimated. After controlling various variables related to an individual's ability to repay the loan, it was statistically confirmed how the expansion of the medium-yield loan market had an effect on the borrower's delinquency probability.

Key Words: Medium-Yield Loan, Competition, Financial Stability

JEL Classification: G21

---